口訣語尾'ㅅᄀᆞᄒᆞ'에 대하여

金 斗 燦*

1. 글머리

우리 국어학계에 처음 『구결연구』라는 전문 학술지가 간행된다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이 '구결'에 대한 고구가 고려어 문법을 재구할 수도, 또한 15세기 국어의 숱한 묵은 숙제들을 풀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이다. 이번 창간호에 필자가 지정 받은 제목은 이제까지 구결 중, 희귀토로 보아왔던 위 표제인 'ㅅᄀᆞᄒᆞ'(흐며 히)이다. 이 吐에 대해서는 필자가 1987년 처음 麗代인 「南明集」(1239년 刊)의 자료에서 다룬 이후, 1989년에 「佛說四十二章經」(1361년 刊), 1992년에 「金剛經」(1415년 刊), 1993년 초에 「首楞嚴經」(1127년 刊)과 「大慧書」(麗末추정 刊) 등 조금씩 차례로 발표(또는 구두 발표에서 부표)했던 것 등을 모두 돌이켜 보면 이번이 5번째로 쓰게 된 셈이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잊혀진 우리 고대의 국어를 되찾아 재구한다는 작업은 자칫하면 무모한 추측과 가설 등을 만들어 스스로를 예기치 못한 오류로 몰아넣을 위험성마저 없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허락하는 한 많은 先代의 同一 구결(형태)들을 15세기 국어(언해), 또는 현대어의 해독에 하나하나 대응시켜 가며 분석하고 나서 또 다시 재검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00년, 때로는 200년이란 엄청난 시대적 時空마저 무시한 채 성급히 15세기 국어에다 等式인양 꿰어 맞추기 식으로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

* 율곡문화원

조어식 번안"(이숭녕: 1955)에 사로잡히기 쉬운 我執이나, 前轍 등은 …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르되 刻舟求劍의 愚가 아닌가 한다. 다음은 이와는 반대로 많은 典籍으로부터 추출한 고대어 형태의 결과가 단지 15세기 국어와는 딴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분한 회의는 고사하고 즉각 배척되어 어불성설로 타기하는 식의 그런 풍토도 실은 옳은 태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타성화된 두 상황하에서 우리는 하나의 指針으로서 이제까지 수집하고 쌓아 올린 事例(化石) 등에서 집계하고 분석한 결과의 온축만이 유일한 척도가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엄연한 사실이오,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다 올바른 해석만 붙일 수 있다면 우리가 찾고 있는 해답은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본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이 'ㅅ가ㅎ'의 묵은 숙제를 다음 장에서 실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시켜 볼 것이다.

2. 出典과 例

吐'ㅅ가ㅎ'가 나타나는 옛 문헌들은 대개가 고려시대의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러므로 이 吐에 대하여 분석함에 있어서 방법론의 하나인 점검(check)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를 제기해 둔다. 첫째 ≪1≫, 'ㅅ가ㅎ'의 핵심적인 의미·기능은 우선 더 많은 자료를 예거해 보아야 찾아낼 수 있지 않는가? 둘째 ≪2≫, 이제까지 발표한 吐'ㅅ가ㅎ' 구절에서 어사 호응으로 함께 나타난 환경인 '纔'나 '旣'의 글자가 다른 자료에서도 역시 나타나는가? 셋째 ≪3≫, 새로 제시하는 예문의 'ㅅ가ㅎ'가 앞 ≪2≫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역시 이미 발표한 것과 같은 의미·기능을 하는가? 등이다.

첫째 ≪1≫의 문제는 더 많은 자료의 제시이다. 이제까지 발표한 자료(그 순서대로)와 이번에 새로 추가한 자료에서 吐'ㅅ가ㅎ'가 나타나는 구절만을 모두 合쳐 보면 아래와 같이 30종의 例가 된다. 다만 자료의 刊年과 墨書로 현토된 시기가 不一致하므로 편의상 필자가 발표한 자료에다 이에 새 자료

나, 또는 기 자료에서 새로 찾아낸 구절 등의 문구를 발표 또는 발굴한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러나 아래 例示의 구절에서 'ンかな' 이외의 吐는 우선 생략한다. 또 上點(·)표의 漢字는 ンかな가 나타나는 환경 및 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 필자가 매긴 표시이다.

[一]「高麗版 南明集」(1239년 刊) … 3回

(1) 慧日才昇 ンかな 一點無 <4a>

(2) 霹靂才轟 ンかな 雨似傾 <33a>

(3) 一點才生 ンかな 卽喪眞 <29b>

[二]「佛說四十二章經」(1361년 刊) … 1回

(4) 聲名顯著 ンかな 身已故矣 <사 7a>

[三]「首楞嚴經」(1127년 刊)의 일부분. … 4回 (未完)

(5) 汝暫擧心 ンかな 塵勞先起 <四8a>

(6) 性眞旣隱 ンかな 空覺遂分 <六8a>

(7) 希欲心生 ンかな 自已失眞 <七13b>

(8) 故曰欲眞 ンかな 已非眞眞如性也 <七13b>

[四]「金剛經」(1415년 刊) … 3回

(9) 一波纔動 ンかな 萬波隨 <下20a>

(10) 一塵纔起 ンかな 翳磨空 <下41b>

(11) 天命旣立 ンかな 眞空不有 <下54a>

이상의 내용(1번~ 11번)은 이미 필자가 발표했던 11종 모두를 다시 옮겨 쓴 부분이며, 이하의 내용(12번~30번)은 새로 추가하는 부분이다.

〔五〕「大慧普覺禪師書」(麗末 추정 刊) … 1回

(12) 善知識纔開口 ᄉᆞᄆᆞᄉᆞ 渠已在言前 <40a>

〔六〕「慈悲道場懺法」(1379년 刊의 筆寫本)<崔銀圭 1993>[1] … 1回

(13) 罪人 送見心生歡喜我欲往中我欲往中 ᄉᆞᄆᆞᄉᆞ 風刀解身 <四24>

〔七〕「川老金剛經」(1387년 刊) … 6回

(14) 古人道喚作如如 ᄉᆞᄆᆞᄉᆞ 早是變了也 <3a>

(15) 說盡山雲海月情 ᄉᆞᄆᆞᄉᆞ 依前不會空惆悵 <16a>

(16) 一波纔動 ᄉᆞᄆᆞᄉᆞ 萬波隨 <22b>

(17) 一波纔起 ᄉᆞᄆᆞᄉᆞ 萬波隨 <28b>

(18) 擧一步 ᄉᆞᄆᆞᄉᆞ 如象王迴顧 <29b>

(19) 退一步 ᄉᆞᄆᆞᄉᆞ 若獅子頓呻 <29b>

〔三〕「首楞嚴經」(1127년 刊)의 추가분. … 11回

(20) 空色旣立 ᄉᆞᄆᆞᄉᆞ 想相競生色想雜和 <二3b>

(21) 所謂纔有是非 ᄉᆞᄆᆞᄉᆞ 紛然失心 <二9a>

(22) 所妄旣立 ᄉᆞᄆᆞᄉᆞ 生彼妄能 <三10a>

(23) 纔有所明 ᄉᆞᄆᆞᄉᆞ 卽墮妄覺 <四2b>

(24) 所妄旣立 ᄉᆞᄆᆞᄉᆞ 生汝妄能 <四2b>

(25) 所旣妄立 ᄉᆞᄆᆞᄉᆞ 生汝妄能 <四2b>

(26) 能所旣立 ᄉᆞᄆᆞᄉᆞ 心境互分故 <四2b>

(27) 同異發明 ᄉᆞᄆᆞᄉᆞ 因此復立無同無異 <四2b>

(28) 所妄旣立 ᄉᆞᄆᆞᄉᆞ 明理不踰 <四4a>

---

1) 위 귀중본 「詳校本 慈悲道場懺法」(1379)의 열람을 쾌히 허락해 주신 趙炳舜 誠岩古書博物館長의 厚意에 각별히 고마움을 표한다.

(29) 我一宣揚 ᄋᆞᄉᆞ 愛心永脫 <七1b>

(30) 將欲復眞欲眞 ᄋᆞᄉᆞ 已非眞眞如性 <七13b>

이상 총 30종의 자료는 첫째 ≪1≫의 문제를 거의 충족시켜 줄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3. 麗代의 吐

여기서 吐'ᄋᆞᄉᆞ'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고려시대 구결의 특징의 하나인 複合吐 기능에 대해 검토하고 넘어감이 좋겠다.[2] 필자가 다룬 자료 중에서 그 例를 2종씩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直指心體要節」(Paris本)의 ① ᄀᆞᆯ_1 ᄆᆞᆫ_2(_을·고)<30a>, ② ᄀᆞᆯ_1 ᄋᆞᄌᆞᄆᆞᆫ_2(_을·ᄒᆞ놋다)<30a>, 「南明集」(안동본)의 ① ᄀᆞᄉᆞᆫ_1 ᄋᆞᄎᆞᄉᆞ_2(_ㄴ돌·ᄒᆞ리라)<21a>, ② ᄂᆞ_1 ᄋᆞᄀᆞᆯ_2 ᄉᆞᄃᆞ_3(_이라·호놀·ᄃᆞ녀)<4a>, 「佛說四十二章經」(범우본)의 ① ᄀᆞᄇᆞ_1 ᄋᆞᄇᆞᄒᆞ_2(_ㄴ들·호리니)<사7a>, ② ᄎᆞᄂᆞ_1 ᄋᆞᄇᆞ_2 ᄋᆞᄉᆞ_3(_케·ᄒᆞ리라·ᄒᆞ샤)<유11b>, 「首楞嚴經」(안동본)의 ① ᄋᆞᄀᆞ_1 ᄉᆞᄒᆞ ᄋᆞᄒᆞ_2(_혼·딧·ᄒᆞ야)<二1a>, ② ᄋᆞᄉᆞᄀᆞᄉᆞᆯ ᄋᆞᄒᆞ_2(_ᄒᆞ샨돌·ᄒᆞ야)<一5a>, 「大慧書」(남풍현본)의 ① ᄀᆞ_1 ᄋᆞᄀᆞᄃᆞᄒᆞ_2(_을·홀시니)<78a>, ②· ᄋᆞᄀᆞᄀᆞ_1 ᄋᆞᄒᆞ_2(_라·호놀·ᄒᆞ야)<81a>, 「梵網經」(대구본)의 ① ᄀᆞᆯ ᄋᆞ西ᄒᆞ_2(_을·ᄒᆞ요니)<5b>, ② ᄋᆞᄀᆞ_1 ᄉᆞᄒᆞ ᄉᆞᄀᆞ_2(_혼·딧·커다)<23a, 44a>, 「川老金剛經」(모씨본)의 ① ᄀᆞᄀᆞᄒᆞᄀᆞ_1 ᄋᆞᄀᆞ_2(_인돌·ᄒᆞ며)<4b>, ② ᄋᆞᄀᆞᄒᆞ_1 ᄋᆞᄉᆞᄀᆞᄒᆞ_2 ᄋᆞᄎᆞᄉᆞ_3(_혼돌·ᄒᆞ샬돌·ᄒᆞ리라)<16b>.

등이다. 그런데 위에서 예시한 모든 복합토의 下線'---' 끝 숫자 1.2.3.의

2) 洪起文(1957:250)은 複合吐와 그 例로 '乙 + 口口'(對格 + 口口) 등의 역독 기능에 대해 이미 상론한 바 있다. 複合吐의 특징에 대해서는 洪起文(1957:250-262). 拙稿(1987:147). 李丞宰(1990:119) 등 참조.

순서대로, 때로는 숫자 2. 3.의 토가 문맥에 따라 그 차례대로 逆讀(上代에선 原文 左側에다 吐의 記入)이 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여 이는 上代인 「舊譯仁王經」의 釋讀 구결(곧 釋讀口訣 時代)에서와 같은 여기서 예상한 左側吐가 이번에는 右側吐의 바로 밑으로 차례차례(곧 順讀口訣 時代)로 옮겨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복잡한 폐단에서 점차 단순화로 발달되어, 위와 같이 겹으로 포개어졌던 順讀口訣로부터 麗末에서는 懸吐의 上位部는 결국 탈락되고, 맨 마지막 單一吐만이 남게 된 것이다. 이른바 鮮初에 앞선 麗末경의 口訣 등에서 보여 주듯 單一吐로서의 音讀口訣 時代의 讀法(곧 마지막 逆讀吐만을 표기하는 句讀法)이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改吐(後述, 「송성문본」 등 改吐 참조)도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며 이것이 즉 複合吐와 單一吐간의 현격한 차이점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여 이것들은 單一吐가 아니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위 모든 例의 吐들은 하나의 語形으로 쓰일 수도, 또는 쓰인 일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例를 들어 보자.

例(一), 'ㄹㅁ'(_을·고)의 경우: 「直指」의 口訣文 "不爲戒律ᄒᆞ 所制ㄹㅁ" <30a>는 "戒律에서 制裁한 바(所)를[ㄹ] 하지 않고[ㅁ]"(필자 해독)로 새겨져서 즉 吐'ㄹ'이 所에, 吐'ㅁ'는 不에 각각 현토됨을 알 수 있다.

例(二), 'ㅅㄱㅊㄴㅣ'(_혼·딧·커다)의 경우: 「梵網」의 口訣文 (1) "如 … 廣明 一一戒相ㅅㄱㅊㄷㅗㅣ" <23a>는 "如ㅊㄷㅗㅣ … 廣明ㅅㄱ 一一戒相 / 낱낱의 戒相을 널리 밝힌[ㅅㄱ] 것과 같은[ㅊㄷ] 것이다[ㅗㅣ]"(필자 해독)으로 새겨져, 吐가 각각 분리되면서 逆讀으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單一吐가 아니라 複合吐인 것이다. 古老들은 "漢文에 익숙하면 이러한 복합토를 읽을 때, 문맥에서 관용적으로 나오는 문장 구절에 따라 어떤 글자가 어느 吐에 붙는지를 자동적으로 터득하여 읽는다는 것이다." 곧 '讀書百遍 義自見'을 두고 한 말이다. 이렇듯 漢文 독법의 발달로 말미암아 順讀口訣이 발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여기서 귀납되는 바 표제의 吐'ㅅㄱㅈ'도 위와 같은 복합토의 하나로 구성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ㅅᄀᄒᆞ'를 'ㅅᄀ+ᄒᆞ'로 분리 하였을 때, 그 'ᄒᆞ'(-히)의 기능이 올바로 문맥에서 逆讀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된다.[3] 그러면 우리는 이것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먼저 吐'ㅅᄀ'(-ᄒᆞ며)는 同時 進行法(이숭녕: p.287) 語尾 이외에 여기서 다르게 해석될 염려는 없음이 自明하다.[4] 그런데 다음 'ᄒᆞ'(-히)의 기능은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ᄒᆞ'(-히)가 쓰여진 用法에 대해 고려시대의 문헌 등에서 이를 새로 찾아 보기로 하자.

吐'ᄒᆞ'(-히)는 이제까지 부사 파생 표지인 '접미사'로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麗代의 현토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1] 부사 파생 표지의 '-히'(ᄒᆞ):
[2] ㅎ添用語 형태와의 '-히'(ᄒᆞ):

本考에서 다루고 있는 「고려본」 또는 「고려토 전사본」에서[5] 위 [1]과 [2]의 用例를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사 파생 표지의 '-히'(ᄒᆞ) :

---

3) 위 吐'ᄒᆞ/ -히'의 原字는 '屎'(아파 끙끙거릴 히)자로 추정한다. 字形으로는 '兮'(어조사 혜)자에 가깝고 또 그렇게 비슷이 쓰고 있으나 통사적인 실제의 표기로는 '兮'(혜)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앞의 '屎/히'자 뿐으로서 그 草書이거나 略體字로 봐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4) 위 吐'ㅅᄀ'의 형태는 「舊譯仁王經」에서도 保守되고 있다. 당시의 吐'ㅅᄀ'의 독립성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음은 그 구성과 발달의 분석에도 참고가 된다. 예거하면 ① ᄉᆞᆫ<3-19복,14-22복>, ② ㅅᄀᆞᆫ<3-23,15-13,15-14>, ③ ㅅᄀᆞᆫㅅᄎᆞᄀ の…ᄂᆞᆫ<15-13>, ④ ㅅᄀᆞᆫㅅᄂᆞᄒᆞㅅㅗㅁᄒᆞᄀ<3-19>, ⑤ ㅅᄀᆞᆫㅅㅗᄒᆞᄀ<15-2> 등이다.

5) 여기서는 본고에서 인용한 자료 「金剛經」(1415)을 뜻한다. 방대한 量의 「首楞嚴經(송성문본)」(1401)에서 吐'ㅅᄀᄒᆞ'가 단 1 회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 後代의 刊本인 이 「金剛經」(1415)에서 3 회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앞선 麗代 어느 「金剛經」으로부터 轉寫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최근 南權熙 교수의 傳言에 의하면 吐'ㅅᄀᄒᆞ'가 있는 李朝시대의 다른 자료가 하나 더 발견됐다고 한다.

1) 單一吐'ᄒᆞ'만이 쓰인 例('ᄒᆞ' 현토의 漢語와 그 언해만 취함)

「南明集」(안동본 / 언해본)에서 ① '至ᄒᆞ / 니르리'<6b / 上19b>, ② '殷勤ᄒᆞ / 은근히'<28b / 下23a>, 「首楞嚴經」(안동본 / 언해본)에서 ③ '至ᄒᆞ / 니르리'<一6b / 一85b, 四30a>, ④ '洎ᄒᆞ / 니르리'<二3b / 二19a>, ⑤ '狹ᄒᆞ / 좁거늘'<二6b / 二41a>, ⑥ '經ᄒᆞ / 디ᄂᆞ듸'<四5a / 四31a>, ⑦ '盡ᄒᆞ / 다ᄋᆞᄃᆞ록'<七9b / 七46a>, ⑧ '速疾ᄒᆞ / ᄲᆞᆯ리'<七10a / 七50a>, ⑨ '終ᄒᆞ / ᄆᆞᆺ게'<七12b / 七69a>, ⑩ '經ᄒᆞ / 디내야도'<九6b / 九35b>, ⑪ '無端ᄒᆞ / 긇업시'<九11b, 九16a / 九77a, 九105b>, …

위에서 우리는 'ᄒᆞ'(-히)의 끝 풀이에서 주목했던 그 형태가 반드시 '-히'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은 拙稿(1987, 1989)에서 'ᄉᆞᄉᆞᄒᆞ'의 'ᄒᆞ'(-히)가 'ᄀᆞ시', '이믜' 등의 '시', '믜'으로 대응하였을 때, 위와 같이 'ᄒᆞ/ -히'가 반드시 '-히'로만 나타나지 않음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다음은 添加吐'ᄒᆞᄀᆞ'의 경우이다.

2) 添加吐 'ᄒᆞᄀᆞ'만이 쓰인 例.('ᄒᆞᄀᆞ' 현토의 漢語와 그 正音吐만을 취함)

「首楞嚴經」(안동본/ 대구본/ 지림본/ 언해본)의 ① 至十八界ᄒᆞᄀᆞ/ ᄒᆞ/ ᄒᆞᄀᆞ/ 히 爲世間法<四7b/ 四38b/ 四20b/ 四50a>, 「首楞嚴經」(안동본/ 대구본/ 언해본)의 ② 從此 逮終ᄒᆞ/ ᄒᆞ/ 히ᄂᆞᆫ 名無色界<九5b/ 九8a/ 九32a>, 「法華經」(남풍현본/ 언해본)의 ③ 至衆生亦復然 ᄒᆞᄀᆞ/ 힌 卽希慕法利也 <三30a/ 三102a> 및 ④ 至悉得成就ᄒᆞᄀᆞ/ ᄂᆞᆫ皆權應之德也<四7a/ 四23b>[6] — 등.

위 ①, ②, ③, ④에서 우리는 'ᄒᆞ/ ᄒᆞᄀᆞ/ 히/ 히ᄂᆞᆫ/ 힌/ᄂᆞᆫ' 따위가 모두 同軌로서 서로 두루 넘나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ᄒᆞᄀᆞ'의 '-ᄀᆞ'(-ㄴ)은 15세기의 'ᄒᆞ야ᄂᆞᆫ/ ᄒᆞ얀'(이숭녕: p.292)에서의 '-ᄂᆞᆫ', '-ㄴ'따위와 같은 强調法에 지나지 않음이 밝혀진 것이다. 즉 국어에 있어서 子音 n 의 첨가적 발달은 주지의 사실이다.[7]

---

6) 위 ④의 正音吐 'ᄂᆞᆫ'은 그 언해문에선 '니르린'<四23b>에 대응한다.

7) 李基文(1964:348)에서 "國語에 있어서의 子音 n의 添加的 發達은 매우 널리 나타난다." 참조.

[2] ㅎ添用語 형태와의 '-히'(ᄒᆡ):

3) 添加吐'ᄒᆡ'가 쓰인 例. ('ᄒᆡ' 이외의 吐는 편의상 생략함)

「川老金剛經」(모씨본)의 ① 如來 不以具足相故 得阿耨多羅三藐三菩薩ᄉᆞᄂᆞᆫ ᄒᆞᆫ<27a>,[8] 「法華經」(남풍현본 / 언해본)의 ② 諸地 如下明 始於人天 終於十地ᄒᆞᄆᆞ<三11b / 三42a>.

위에서 ①의 得ᄉᆞᄂᆞᆫ ᄒᆞᆫ(-라 ᄒᆞ야 히여)는 현대어로 '얻었다 함 + 이여'에 해당하여 풀어지는 것이다. ②의 '終ᄒᆞᄆᆞ'(終히라)는 언해에서 '終ᄒᆞᄆᆞ/ ᄆᆞᄎᆞ시니라'<三42a>의 'ᄆᆞᄎᆞㅎ + 이라'에 대응하여 풀어지므로 결국 'ᄒᆞᆫ / -히여'와 'ᄒᆞᄆᆞ / -히라'는 각각 ㅎ添用語에 쓰인 감탄 또는 서술형 어미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남광우: p.499). 이는 다른 자료인 同軌의 "白衣ᄂᆞᆫ 쇼히라"<법화 四195a>라는 예문에서도 뒷받침이 된다.

한편 다른 의견이 있다. 위 [1]의 'ᄂᆞᆫᄃᆡ'가 15세기 언해에서 '-오매'나 'ᄒᆞ면'으로 대응된다는 점만 들어, 문맥에서의 기능이나 100년이란 엄청난 時空은 고사하고 곧 바로 'ᄂᆞᆫ + ᄃᆡ'의 'ᄃᆡ/ -히'가 副音 j 거나 또는 末音添記가 아니겠는가 하는 前述했던 바 等式과 같은 의견이다. 그러나 拙稿(1989:80)에서 밝혔듯이 「佛說四十二章經」(1361)의 懸吐例의 경우는 사정이 전연 다르다. 그 異本마다 吐의 改新에서도 'ᄃᆡ/ 히'는 유지되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즉 底本 A(범우본: 1361)은 'ᄂᆞᆫᄃᆡ/ ᄒᆞ며 히', 異本 A(호암본:1361)는 'ᄂᆞᆫᄀᆡ/ᄒᆞ면', 異本 B(안동본:1384)는 'ᄂᆞᄂᆞᆫᄃᆡ/ ᄒᆞ면 히', 異本 C(황패강본: 1479)는 'ᄂᆞᆫᄃᆡ/ ᄒᆞ야 히' 등으로 각각 나타나는 경우이다. 그러면서 위 A本 '-면'에서의 B本 '-면히'에로 모두 'ᄃᆡ/ -히'가 계속 유지된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이는 부사 파생 표지 'ᄃᆡ'의 기능이 독자적으로 언제나 常存하고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ᄃᆡ/ -히'는 위에서 지적한 대로 副音 j거나 末音添記는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여기에 비슷한 다른 의견이 있다. 먼저 吐'ᄀᆞ/ -며'를 어미로 보지 않고,

8) 위 原文에서 ①의 '具足相'은 '身體의 諸相이 훌륭히 完備함'의 뜻<불사전:p.773>, 또한 '阿褥多羅三貌三菩薩'은 '佛의 最上 絶對 完全한 智'의 뜻<불사전:p.7>.

부사 파생 접미사로서 이에 吐'ᄂᆞᄆᆞᆺ'의 'ᄉᆞ'를 더해 같은 기능을 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 例로는 「舊譯仁王經」(12c 추정)에서 "善ᄀᆞ"<3-19, 14-22>가 '선며/ 이대며' 따위의 독음으로 추정하되, '이대'의 뜻인 현대어 '잘'이나 '충분히' 등인 부사로써 기능하듯 그런 어떤 기능을 할것이라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 견해도 문맥에서는 모두 그 의미를 상실한다. 왜냐하면 後述에서 詳論하겠지만 吐'ᄂᆞᄆᆞᆺ'는 부사가 될 수 없으며 그 다음의 後行하는 구절을 반드시 이어주는 '연결어미'라는 기능만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吐'ᄂᆞᄆᆞᆺ'는 혹시 부사'ᄒᆞ물며'(況)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추측이다. 그러나 이 'ᄒᆞ물며'는 그 後行의 구절을 반드시 逆接으로 이어주어야 하는데 반하여 吐'ᄂᆞᄆᆞᆺ/ ᄒᆞ며 히'는 언제나 그 後行 구절을 順接으로 연결시켜주는 어미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또 하나의 의견이 있다. 첫째, 이승재(1990: 145)에서 제기한 바, 吐'ᄉᆞ'를 '至' 외에 '若'에서도 현토할 수 있는 용법으로 보고, 吐'ᄂᆞᄆᆞᆺ'가 拙稿(1989: 80)에서 'ᄒᆞ면'으로 자주 대응함에 있어서 이는 위 '若'인 [조건] 혹은 [가정]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위 당해 예문 (68)의 1.2의 "若 … 應如法ᄉᆞ … "<20b, 35a>등의 吐'ᄉᆞ'는 모두 문맥상 '若'이 아닌 '如'에 딸림이 확인된다. 沈載烈(1979)에서도 그 구절인 "如法ᄉᆞ/법답게<216, 304>"의 풀이가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이승재(1993: 62)에서 위 吐'ᄂᆞᄆᆞᆺ'를 첫째의 'ᄒᆞ면' 외에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호매, -에/ 애, -커늘'로도 대응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비교]의 의미거나, 또는 [비교]를 전제로 하는 [조건]을 나타낼 때 사용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필자가 이미 제시한 例文 외에, 추가로 後述할 例文에서도 'ᄂᆞᄆᆞᆺ'는 언해에서 '호매, -어/ 아/ 애, 거늘'로서 대응되나 문맥상은 모두 원인 기능임이 확인된다.[9] 따라서 [조건]이나 [비교]의 의미는 어느 경우에서도 나타

9) 위 李丞宰(1993: 62)에서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호매, -에/ 애, 커늘' 등"은 당해 吐'ᄂᆞᄆᆞᆺ'가 현토된 모든 例文에서 그 비교 기능을 찾아볼 수 없을 뿐 더러, 이 어미들은 오히려 원인 기능의 어미로 인식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南廣祐(1960)에서 "-거늘(어미) -매, -으매, -므로"<p.30>, 安秉禧·李珖鎬(1990)에서 "원인의 어미: -매, -거늘"<p.251>, "원인을 나타내는 처격조사: -에/ 애"<p.180> 등 참조.

나지 않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위 [2]의 경우를 제외한 부사 파생 '접미사' 기능의 [1]만이 우리가 다루려는 30 例文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된 셈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예시한 전체 30 예문 중, 이미 발표했던 ⑪번까지의 例에서 'ᄉᆞᆫ'를 '접미사'로 해석한 필자의 拙稿(1987: 121, 1989: 81)는 타당하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를 다시 요약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그 例文(No.1~11까지)를 귀절별로 제시한다. 아래 a는 原文과 그 현토, 곧 借字吐: 특히 「능엄경」의 'ᄂᆞᄉᆞᆫ'만은 '안동본/ 대구본/ 기림사본/ 송성문본'의 吐를 모두 수록한다. 다만 ☒표는 缺本의 뜻이며, 끝의 /표 뒤는 언해의 正音吐, 또는 현대어의 한글토이고, a, a'는 그 正音吐와 언해문, b, b'는 이미 저술로 발표된 佛徒의 현대어 풀이 등이다. 만일 그런 현대어 풀이가 없을 때는 필자가 대신 해독한 것이다. 각 예문의 언해문(현대문) 다음의 c 란은 필자가 아래서 'ᄂᆞᄉᆞᆫ'의 핵심 의미로 귀납된 '繼起'에 의해 다시 풀이한 接近의 해석이다.

[一] 「南明集/언해본」(1239/1482) --- 3回

(1) a. 須知 罪性ㅅ/ 이 猶霜雪 ᄀᆞᆮ/ ᄒᆞ야 慧日ㅅ/ 才昇ᄂᆞᄉᆞᆫ/ 에 一點無ᄉᆞᆷ乙ᄀᆞᄆᆡ·/ ㅣ니라 <4a / 上 8b>

a'. 罪性이 서리와 눈괘 ᄀᆞᆮᄒᆞ야 智慧ㅅ 히 ᄯᅩ 올오매 ᄒᆞᆫ 點도 업ᄂᆞᆫᄃᆞᆯ 모로매 아롤디니라 <上 8b>

c. 罪性이 서리나 눈과 같아서 知慧의 해가 떠오르자마자 잠깐 한 點(罪性)도 없는 것임을 모름지기 알 것이로다. --- <필자>

(2) a. 霹靂 ∅/ 이 才轟 ᄂᆞᄉᆞᆫ/ 애 雨似傾 ᄀᆞᆮᄒᆞ/ ᄒᆞᄂᆞ니 無限人天ㅅ/ 이 夢中覺 ᄀᆞᆮᄒᆡ/ ᄒᆞ도다 <33a / 下 38a>

a'. 霹靂이 ᄯᅩ 轟호매 비 기우린 ᄃᆞᆺᄒᆞᄂᆞ니 그지 업슨 人天이 ᄭᅮ미 ᄭᆡ도다 <下 38a>

c. 벼락이 내리치자마자 잠깐 비(雨)가 기웃이 쏟아지니 --- <필자>

(3) a. 法是塵 ·ᄉᆞᆫᄒᆡ/ 이니 一點ㅅ/ 이나 才生ᄉᆞᄉᆞᄆᆞᆫ/ ᄒᆞ면 卽喪眞 ᄉᆞᆷᄒᆡ·/ ᄒᆞ리라 < 29b / 下 28a>

a. 法이 이 듣그리니 ᄒᆞᆫ 點이나 又 나면 곧 眞ᄋᆞᆯ 일흐리라 <下 28a>

c. 한 點의 티끌이 생기자마자 잠깐 眞如를 잃을 것이다. --- <필자>

[二]「佛說四十二章經」(1361년 刊) --- 1回

(4) a. 聲名顯著 ᄉᆞᄉᆞᄆᆞᆫ/ ᄒᆞ면 身已故矣ᄆᆡᄒᆡ/ 라 <사 7a / 權五虎: 114>

b. 名聲이 (이미) 드러나 버리면 몸은 이미 못쓰게 되는 것이다. <權五虎: 115>[10]

c. 名聲이 드러나자마자 몸은 이미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다.---<필자>[11]

[三]「首楞嚴經(안동본/ 대구본/ 지림본/ 송성문본/ 언해본)」(1127/ 麗末추정/ 麗末추정/ 1401/ 1462) --- 4 回(未完).

다만 아래「대구본」의 張次는 白色의 일련번호(No.)에 따른다. 또 ☒ 표는「지림본」의 缺本 표시이다.

(5) a. 汝暫擧心 ᄉᆞᄉᆞᄆᆞᆫ/ ᄉᆞᄉᆞ/ ᄉᆞᄉᆞᄀᆞ/ ᄉᆞᄉᆞ/ ᄒᆞ야 塵勞∅/ㅣ 先起 ᄉᆞᆷᄒᆡ/ ᄒᆞᄂᆞ니 <四8a/ 四No.94a/ 四22b/ 四22b/ 四54a>[12]

a'. 네 잢간 ᄆᆞᅀᆞᄆᆞᆯ 드러 塵勞ㅣ 몬져 니ᄂᆞ니 <四 54a>

c. 너의 마음을 놓자마자 잠깐 塵勞(煩惱)가 먼저 일어나니 --- <필자>

(6) a. 性眞ㅅ/ 이 旣隱 ᄉᆞᄉᆞᄆᆞᆫ/ ᄉᆞᄉᆞᄆᆞᆫ/ ☒/ ᄯᅳ/ 커ᄂᆞᆯ 空覺 ㅅ/ 이 遂分… / ᄒᆞ야 < 六8a/ 六144a/ ☒/ 六22a/ 六52a>

---

10) 權五虎(1989:116)의 해설: "一 명예를 얻었을 때 그 명예를 누릴 사이도 없이 몸은 병들고 죽게 됨을 강조하여 명예가 허망한 것임을 가르친 것이다." 참조.

11) 위 吐'ᄉᆞᄉᆞᄆᆞᆫ'의 'ᄆᆞᆫ/ -히'가 붙는 부사 이미(已)의 위치는 原文에서 後行이나, 부사의 前後의 위치는 언제나 그 문맥에서 융통성이 있으므로, 여기서도 풀이 '-자마자'의 直後가 아닌 위치로 역시 융통성을 두었다.

12) 위 原文에서 '暫(잠깐 잠)'자와 호응함은 곧 본론의 핵심 부분인 '纔·才'자의 호응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a'. 性의 眞實이 ᄒᆞ마 숨거늘 空과 覺괘 같아 <六 52b>
c. 本性의 眞實이 숨자마자 이미 空과 覺(깨침)이 드디어 나뉘어져 --- <필자>

(7) a. 希欲心 ∅/ 이 生ᄂᆞᆷᄌᆞ/ ᄂᆞᆷᄌᆞ/ ☒/ ᄂᆞᄆᆞ/ ᄒᆞ면 自已失眞ᄂᆞᄉᆞᄀᆞ大/ 일ᄉᆡ <七13b /七No.180b/ ☒/ 七36b/ 七74a>
a'. ᄇᆞ라코져 ᄒᆞ논 ᄆᆞᅀᆞ미 나면 제 ᄒᆞ마 眞ᄋᆞᆯ 일흘ᄊᆡ <七 74b>
c.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자마자 이미 저절로 그 眞如를 잃으므로 --- <필자>

(8) a. 故曰 欲眞ᄂᆞᆷᄌᆞ/ ᄂᆞᆷᄌᆞ/ ☒/ ᄂᆞᄆᆞ/ 이면 已非眞眞如性也ᄉᆞᄂᆞᄋᆞᄒᆞᄉᆞ/ㅣ라 ᄒᆞ시니라 <七13b/ 七No.180b/ ☒/ 七36b/ 七74a>
a'. 이런ᄃᆞ로 니ᄅᆞ샤ᄃᆡ 眞ᄋᆞᆯ 코져 ᄒᆞ면 ᄒᆞ마 眞實ㅅ 眞如性이 아니라 ᄒᆞ시니라 <七 74b>
c. 이런고로 이르시되 眞如코져 하자마자 이미 참된 眞如의 本性은 아니다 하시니 --- <필자>

[四] 「金剛經」(1415년 刊)[13] — 3回

(9) a. 一波纔動 ᄂᆞᆷᄌᆞ 萬波隨 ᄂᆞᄒᆞᄒᆞ · <下 20a>
b. 한 파도가 ∅ 움직이면 萬 파도가 따른다 < 金雲學: 183>[14]
c. 한 파도가 일자마자 잠깐 萬의 파도가 뒤따른다. --- <필자>

(10) a. 一塵纔起 ᄂᆞᆷᄌᆞ 翳磨空 ᄂᆞᄒᆞᄒᆞ <下 41b>
b. 한 티끌이 겨우 일어나면 가리어 虛空을 갈고 < 金雲學: 233>
c. 한 티끌이 일어나자마자 잠깐 앞을 가려서 虛空을 갈(磨)고 --- <필자>

(11) a. 天命ㅣ 旣立 ᄂᆞᆷᄌᆞ 眞空ㅣ 不有ㅁ <下 54a>

---

13) 여기 「金剛經」(1415)의 자료는 이보다 先代인 麗末 「金剛經」의 현토에서 轉寫했을 가능성을 이미 注 5)에서 언급한 바 있다.
14) 위 ∅표는 金雲學 「金剛經五家解」(1980)에서 위 原文의 '纔'(잠깐 재)자의 풀이가 그 위치에서 빠졌음<P.183>을 뜻한다.

c. 하늘의 命令이 成立하자마자 이미 眞實의 虛空은 있지 아니하고
--- <필자>

첫번째는 吐'ᄋᆞᄀᆞᄒᆞ'가 才·纔와 호응하는 경우이다. 위 例文 (1)의 구절부터 차례로 검토하기로 하자. 먼저 才자는 正字로 纔(잠깐, 방금 재)자이고 뜻은 '잠깐'이 古典의 原義에 가장 가깝다[이하 同].[15] 이제 여기 才(纔)와 호응하면서 吐'ᄋᆞᄀᆞᄒᆞ'에 대응하는 諺解를 보면 '- 으매'로 나타난다. 그 原文 "… 罪性이 猶霜雪ᄒᆞ야 …"에 대해 또한 언해문(1482)의 注釋<上9a> 끝 부분은 "… 모든 罪ᄂᆞᆫ 서리와 이슬왜 ᄀᆞᆮᄒᆞ야 智慧ㅅ 히 能히 스러더ᄂᆞ니라 …"로 부연하고 있다. 이 '스러더ᄂᆞ니라'는 곧 消의 뜻으로 현대어로 "모든 罪는 이슬·눈(霜·雪)과 같이 햇살이 떠오르자마자 잠깐 사라진다 "는 설명이다. 다음은 例文 (2)에서 구절 "霹靂이 … 雨似傾ᄒᆞᄂᆞ니"에 대해 그 언해문(1482)의 注釋<下38b>을 보면 "霹靂이 ᄀᆞᆺ 轟타 호ᄆᆞᆫ 法雷ᄅᆞᆯ 뮈우실시라 비 기우린 ᄃᆞᆺ다 호ᄆᆞᆫ 慈悲ㅅ 구루믈 펴 甘露ᄅᆞᆯ 쁘리실시라 …"로 부연하고 있다. 곧 현대어로 "法雷를 울리(움직이)자마자 잠깐 비를 뿌려 慈悲의 구름을 펴 甘露水를 뿌리듯 한다 "는 설명이다. 그리하여 이하 例文 (3), (5), (9), (10)의 '才·暫·纔'자와 호응하는 구절에서도 吐'ᄋᆞᄀᆞᄒᆞ'는 "- (하)자마자 잠깐"이라는 同時의 시간적 부사절로 풀이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논의되는 '纔, 才, 暫, 卽, 急, 則, 因 — (後述의 例文 참조) / 旣, 已' 따위 부사가 나타날 경우는 거의 그 前後의 문맥을 곧바로 이어주는 기능[繼起]을 함에 주목해야 한다.[16]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갈 것이 있다. 위 吐'ᄋᆞᄀᆞᄒᆞ'(ᄒᆞ며 + 히)에서 접미사'ᄒᆞ/히'는 부사 파생 표지로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吐'ᄋᆞᄀᆞ/ ᄒᆞ

15) 위 '纔'(잠깐 재)자는 그 언해문(1482)에선 모두 'ᄀᆞᆺ'으로 대응한다. 이'ᄀᆞᆺ'은 劉昌惇(1964:13)에서 "처음, 방금, 겨우"로 풀었는데, 이중에선 '방금'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 老人語 '방금/금방'을 사용할 경우는 「김민수·홍웅선」(1979:571)에서의 현대어 '바로'로 대치함이 좋겠다.

16) 위 吐'ᄋᆞᄀᆞᄒᆞ'(ᄒᆞ며 히)가 처음 제기되었던 필자의 학위 심사시(1987), 심사 위원 중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安秉禧 심사위원의 "爲弥兮의 해석 —— 兮는 才와 결합?"라고 적힌 메모 글씨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며'는 왜 현대어 '-자마자'와 대응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15세기 국어를 더듬어 볼 필요가 있겠다. 즉 이 'ᄒᆞ며'는 "한 가지 일이 다른 일로 바뀌는 것을 보이는 繼起(계기: 잇달아 일어남)"를 뜻함인데 이는 중세어 '나다가며'에 대응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여 'ᄒᆞ며'는 현대어 '-자마자 곧'과 代替할 수 있다는 立證이다(고영근: 322-323).[17] 또한 현대어 '하며'가 '-자마자'와 시간의 부사절로 같은 범주[繼起]로 분류됨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이익섭 · 임홍빈:261).[18]

두번 째는 'ᄂᆞᄀᆞᆺ'가 旣 · 已와 호응하는 경우이다. 위 例文 (4)의 구절부터 차례로 검토하기로 하자. 먼저 已 · 旣(이미 이/ 기)는 'ᄒᆞ마'로 諺解되었으나, 다시 현대어 '이미'로 대체함이 더 적절하다. 여기 已 · 旣와 호응하여 'ᄂᆞᄀᆞᆺ'에 대응하는 언해문을 보면 거의 'ᄒᆞ면, 이면'인데, 또한 '-거늘'(原因 기능)도 나타난다. 이것들은 문맥에서 읽으면 단순한 條件 기능이 아닌 조건을 전제로 하는「原因 기능의 어미」임을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것도 첫번째 경우와 같이 'ᄂᆞᄀᆞᆺ'는 '… (하)자마자 이미 …'라는 同時의 시간적 부사절로 풀이됨이 문맥상 확인된다. 그리하여 이하 例文 (6), (7), (8), (11)에서도 위와 같이 '… (하)자마자 이미 …'로 풀이됨은 물론이다.

다시 말하여 吐 'ᄂᆞᄀᆞᆺ'가 前者인 '纔 · 才'(바로)와 호응할 때는「시간적으로 곧 잇달아 일어나는 경우」이고, 이와 대립되는 後者인 ' 旣 · 已 '(이미)와 호응할 때는「시간적으로 곧 바로 직전에 일어난 경우」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국 어느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곧 그 直前 · 直後의 刹那로서 발생하는 繼起(successive occurrence)의 기능임이 문맥에서 귀납되어 얻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여기서는 그 瞬時的(instantaneous)인 상황을 표현한 것이어야 문맥에서 맞는다. 아마 이것이 佛道 奧義를 깨우쳐 주는 심원하고도 오묘

17) 高永根(1987:323)에서 "(43) 나다가며 本來 잇ᄂᆞ니 뉘 ᄒᆞ오ᅀᅡ 업스리오(월인 석보 권 13,31장)" 참조.

18) 李翊燮 · 任洪彬(1983:261)에서 "(22) a. 시간의 부사절: -고, -으며, -으면서(이상 同時); - 자마자, -아/ 어<서>(이상 繼起)" 등 참조.

한 표현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 吐'ㅅ가ᄉᆞ'는 儒書吐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으로서 고유의 佛書吐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19]

4. 先覺의 誨

글 머리에서 필자가 이미 제시했던 둘째≪2≫, 문제와 셋째≪3≫, 문제를 여기서 규명할 차례이다. 이제 前述에서 拙稿(1987.1989)의 例文(1)~(11)을 다시 여기에 轉記 및 문맥으로 再檢하면서 原文과 그 현토 또는 언해문까지를 모두 對校하였는데, 이 때에 필자가 특히 吐'ㅅ가ᄉᆞ'의 핵심 의미를 c 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었다. 곧 이른바 "_자마자 — 바로" [纔·才와 호응할 경우]와 "-자마자 — 이미"[旣·已와 호응할 경우] 등으로 구분해서 추정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번 새로 추가하는 아래 예문(12)~(30)에서도 이 현대어 의미·기능을 吐'ㅅ가ᄉᆞ'의 同一 위치에 각각 대입시켜 가며 그 문맥 등에서 역시 前述과 같은 의미·기능으로 거의 완벽하게 해독되는가를 아래 例文에서 하나하나 검토하기로 한다.

다만 아래 例文에서 사용하는 a, a′, b, b′, c 등의 약호는 前述의 例文(1)~(11)에서 사용한 것들과 같이 여기서도 준용하기로 한다.

[五] 「大慧普覺書」(麗末추정 刊) --- 1回

(12) a. 善知識ㅅ纔開口 ㅅ가ᄉᆞ 渠ㅅ 已在言前 ㅅᄀᆞ 一時ᄀᆞ 領會了也ㅅᄆᆞ
<40a>

---

19) 口訣字에서 첫째,
同音 異形字로 專用해 쓰이는 事例는
儒書: a) 何(呼格 존칭),
佛書: b) 下(呼格 존칭).
둘째, 異意 異形字로 專用해 쓰이는 事例는
儒書: a) 難(난: 과거시제 어미), / 羅隱(란: 미래시제 어미)
<書傳大文(일본 국회도서관본) 上11a복, / 上5b복, 48b>
佛書: b) *'ㅅ가ᄉᆞ'[추정](-자마자 — 잠깐/ 이미) [繼起]
등이 있다.

b. 善知識が口を開くや否や, 彼(士大夫)はもう聞き終らぬ先からあっさりのみ込んでしまいます.<荒木:110>[20]

b'. 선지식이 입을 열자마자 사대부는 이미 들음을 끝내지 않고 먼저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고현섭: 128. 위 日文의 直譯文>[21]

c. 善知識(敎法師)이 입을 열자마자 그(士大夫)는 이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급히 알아차린다. --- <필자>

[六]「慈悲道場懺法」(1379, 筆寫本) --- 1回

(13) a. 罪人ヽ迸見ロ 心生歡喜 ンゝ 罪人卽造五逆十惡者臨命終時見此境來心生喜樂 我欲往中我欲往中 ンかヾ 愛樂玉女欲往車中重言之者欲往之急 風刀解身 ンゝ 寒急失聲 ンゝ <四24>[22]

b. 죄인이 멀리서 보고 환희한 마음을 내어「나도 저 속에 갔으면 좋겠다」생각하면 바람 칼 風刀이 몸을 해부하고, 몹시 추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이운허: 40>

c. 罪人이 지나가다 보고, 마음에 歡喜를 일으켜 [夾註文 참조]"나도 저(車) 속에 가고 싶다 가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잠깐) [夾注文 참조] 바람의 칼날이 몸을 난도질해서 매서운 추위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 --- <필자>

[七]「川老金剛經」(1387) --- 6回

(14) a. 古人ㄐ道/ム 喚作如如 ンかヾ 早是變了也 ヘンヌエセ<3a>

---

20) 위 日譯文에서 앞 原文의 吐'ンかヾ'에 대한 對譯文 "や否や"를 읽고 필자도 깜짝 놀랐다. 이 풀이는 곧 필자가 이제까지 해독한 바 "-자마자"와 완전히 一致하여 결국 그 的中性을 뒷받침하여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21) 高賢燮本은 바로 위 荒木本(참고문헌)의 直譯版인데, 번역의 미흡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위 그 日文 "— あっさりのみ込んで —"의 참뜻은 'まるのみ, うのみ(swallow), 早合點(hasty conclusion)' 등을 가리킨 것, 곧 '성급히'(一時ゝ)이어야 맞는다.

22) 위 原文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그 前文을 아래서 약간 더 인용한다.

… 狀如金車ンゝ 寶蓋在上ンか 一切火炎ヽ 化爲玉女オ入 其女色白光澤如玉化五欲境來引罪人

罪人ヽ 임見ロ …

c. 옛 사람이 말하되 "眞如(如如)를 불러 만들자마자 급히 이것은 변하고 말았다" 고 하시니 --- <필자>

(15) a. 春暖 黃鸝 ㅣ 啼柳上 ᄂᆞᆫᄒᆡ 說盡山雲海月情 ᄂᆞᆷᄀᆞᄌᆞ 依前不會 ᄂᆞᆺ 空惆悵ᄂᆞᆫᄒᆡ <16a>

c. 봄은 따뜻하고 노랑 앵무새는 버드나무 위에서 지저귄다. 山雲 海月의 情을 다 말하고 나자마자 (이미) 前과 같이 만나지를 못하니 허무하이 失意에 차있네 --- <필자>

(16) a. 一波ㅣ纔動 ᄂᆞᆷᄀᆞᄌᆞ 萬波隨 ᄂᆞᆫᄒᆡᄒᆞ <22b>

c. 한 파도가 波動하자마자 (잠깐) 萬波가 (이를) 뒤 따라 일으키고 있으니 --- <필자>

(17) a. 一波纔起 ᄂᆞᆷᄀᆞᄌᆞ 萬波隨 ᄂᆞᆫᄒᆡ <28b>

c. 한 파도가 일어나자마자 (잠깐) 萬波가 (이를) 뒤 따라 일어나고 있구나. --- <필자>

(18),(19) a. 語則全彰法體ㅁ 默則獨露眞常ㅁ 動則隻鶴片雲ㅣᄂᆞᆫ 靜則安山列岳ᄋᆞㅣ 擧一步 ᄂᆞᆷᄀᆞᄌᆞ 如象王ㅣ 廻顧ᄂᆞᆫ 退一步 ᄂᆞᆷᄀᆞᄌᆞ 若獅子嚬呻ᄋᆞㅣ <29>

c. 말씀은 곧 法體(實體)를 나타냄이오. 침묵은 곧 홀로 涅槃(眞常)을 들어냄이다. 움직임은 외짝 鶴의 조각 구름이오. 고요함은 安山의 列岳이로다. 한 거름 내딛자마자 (잠깐) 象王(佛陀)이 돌아다 봄과 같고, 한거름 물러서자마자 (잠깐) 獅子(佛陀)가 포효함과 같구나. <필자>

[三] 「首楞嚴經/ 안동본/ 대구본/ 기림사본/ 송성문본/ 언해본」(1127/ 麗末추정/麗末추정/ 1401/ 1462)의 추가분 --- 11回

(20) a. 空色∅/이 旣立 ᄂᆞᆷᄀᆞᄌᆞ/ ᄅᆞᄉᆞᄂᆞᆷᄀᆞᄌᆞ/ ᄂᆞᆷᄀᆞᄌᆞ/ ᄂᆞᄀᆞ 大/ ᄒᆞ면 想相 ㄴ/이 競生/ ᄒᆞ며 色想∅/ 이 雜和 ᄂᆞᆺ/ ᄒᆞ야 遂爲身相 ᄂᆞᆫᄒᆡ/ᄒᆞ야 <二3b/ 二 No.29b/ 二86/ 二8b/ 二19b>

a′. 空과 色괘 ᄒᆞ마 셔면 想과 相괘 ᄃᆞ토와 나며 色과 想괘 섯거 身相이 ᄃᆞ외야 <二20a>

c. 空과 色이 成立하자마자 이미 想(愛)과 相(憎)이 다투어 생기며 色과 想이 섞여서 드디어 身相이 되어 --- <필자>

(21) a. 所謂纔有是非 ᄋᆞᄉᆞᆷ/ ᄋᆞᄃᆞ/ ᄋᆞᄉᆞᆷ/ ᄋᆞᄉᆞᄀᆞ/ ᄒᆞ면 紛然失心 ᄇᆞᆫᄒᆞᄉᆞ/ 이라 <二9a/ 二No.48b/ 二24b/ 二24b/ 二58b>

a'. 닐온 ᄀᆞᆺ 올ᄒᆞ니 외니 이시면 어즈러워 ᄆᆞᅀᆞᆷ 일후미라 <二59a>

c. 이른바 '옳거니 옳지 않거니'가 있자마자 잠깐 (그것은) 혼란하여 마음을 잃는 것이다. --- <필자>

(22) a. 所妄∅/ 이 旣立 ᄋᆞᄉᆞᆷ/ ᄋᆞᄉᆞᆷ/ ᄋᆞᄉᆞᆷ/ ᄋᆞᄀᆞ大/ ᄒᆞ면 生彼妄能 ᄋᆞᄀᆞ/ ᄒᆞᆯᄉᆡ 故ᄋᆞ/ 로 有七大 ᄋᆞᄒᆡ/ ᄒᆞ니라 <三10a/ 三No.69b/ 三27a/ 三27a/ 三61b>

a'. 所妄이 ᄒᆞ마 셔면 더 妄ᄒᆞᆫ 能을 낼씨 이런ᄃᆞ로 七大 잇ᄂᆞ니라 <三63a>

c. 妄靈된 바가 成立 되자마자 이미 그 妄能은 생겨 그러므로 七大가 있는 것이다. --- <필자>[23]

(23) a. 不知纔有所明 ᄋᆞᄃᆞ/ ᄋᆞᄉᆞᆷ/ ᄋᆞᄉᆞᆷ/ ᄋᆞᄃᆞ/ ᄒᆞ면 卽墮妄覺 ᄋᆞᄀᆞ/ ᄒᆞ야 無窮妄業ㅅ/ 이 由是而生也 ᄋᆞᄆᆡᄒᆞ/ ᄂᆡᄃᆞᆯ ᄒᆞ니 <四2b/ 四No.84b/ 四5b/ 四5b/ 四11b>

a'. ᄀᆞᆺ 불곪 고디 이시면 곧 妄覺애 뻐러디여 그지 업슨 거즛 業이 이롤브터 니ᄂᆞᆫᄃᆞᆯ 아디 몯ᄒᆞ니 <四41b>

c. 밝은 곳이 있자마자 잠깐 곧 妄覺에 떨어져 끝없는 거짓 業이 이로부터 생겨나는줄 알지 못하니 --- <필자>

(24) a. 所妄∅/ 이 旣立 ᄋᆞᄉᆞᆷ/ ᄋᆞᄉᆞᆷ/ ᄋᆞᄉᆞᆷ/ ᄋᆞᄀᆞ大/ ᄒᆞ면 生汝∅/ 의 妄能ㅅᄋᆞᄀᆞᄉᆞᆫᄂᆡ/ 이라 ᄒᆞ시니라 <四2b/ 四No.84b/ 四5b/ 四5b/ 四11b>

c. 妄靈된 바가 成立 되자마자 이미 (그것은) 너희 妄能을 낳는 것이라 하셨다. --- <필자>

(25) a. 所旣妄立 ᄋᆞᄉᆞᆷ/ ᄋᆞᄉᆞᆷ/ ᄋᆞᄉᆞᆷ/ ᄋᆞᄀᆞ大/ ᄒᆞ면 生汝ᄀᆞ 妄能ᄋᆞᄀᆞ

23) 위 '七大'는 "地·水·火·風·空·見·識의 원리로서 주변의 法界를 밝힌 것"의 뜻<불사전: 585>.

<四2/ 四No.85a/ 四6a/ 四6a/ 四13b>

a′. 所ㅣ ᄒᆞ마 거츠리 셔면 네의 妄能을 내야 <四13b>

b. 所가 이미 妄으로 셨으므로 너의 妄能을 내었으며, <이운허: 152>

c. 그 所가 妄靈 되게 成立하자마자 이미 (그것은) 너의 虛妄한 能을 생기게 해서 --- <필자>[24]

(26) a. 能所∅/ ㅣ 旣立ᄂᆞᄆᆞᆺ/ ᄂᆞᄆᆞᆺ/ ᄂᆞᄆᆞᆺ/ ᄂᆞᄀᆞᆺ/ ᄒᆞ면 心境∅/ 이 互分∅/ ᄒᆞᆯ식<四2b/ 四No.85a/ 四6b/ 四6b/ 四14a>

a′. 能所ㅣ ᄒᆞ마 셔면 ᄆᆞᅀᆞᆷ과 境괘 서르 갈아날씨 <四14a>

c. 能과 所가 成立하자마자 이미 (그것은) 마음과 對象(境)이 서로 나뉘어지므로 --- <필자>[25]

(27) a. 同異∅/ 로 發明 ᄂᆞᄆᆞᆺ/ ᄂᆞᄆᆞᆺ/ ᄂᆞᄆᆞᆺ/ ᄂᆞᄒᆞ/ ᄒᆞ야 因此ᄂᆞᄒᆞ/ ᄒᆞ야 復立無同無異ᄂᆞᄒᆞ/ ᄒᆞ야 <四2b/ 四No.85b/ 四6b/ 四6b/ 四14a>

a′. ᄒᆞᆫ가지와 달옴과로 發明ᄒᆞ야 이를 因ᄒᆞ야 ᄯᅩ ᄒᆞᆫ가지 업스며 달옴 업수믈 세여 <四14a>

b. 同과 異를 發明하고서는, 이를 因하여 다시 同이 없고 異가 없음을 세우느니라. <이운허: 152>

c. 같음(同)과 다름(異)을 분명하게(發明) 하자마자 (바로) 이로 말미암아 또한 같음(同)도 없고 다름(異)도 없음이 成立하여 --- <필자>

(28) a. 所妄∅/ 이 旣立ᄂᆞᄆᆞᆺ/ ᄂᆞᄆᆞᆺ/ ᄂᆞᄆᆞᆺ/ ᄂᆞᄀᆞᆺ/ ᄒᆞ면 明∅/ 의 理∅/ ㅣ不踰ᄂᆞᄒᆞ/ ᄒᆞᆯ식<四4a/ 四No.87a/ 四9b/ 四9b/ 四23a>

a′. 所妄이 ᄒᆞ마 셔면 明의 理 넘디 몯ᄒᆞᆯ씨 <四23b>

b. 所인 妄이 이미 成立되면 밝은 理가 넘어가지 못하느니라. <이운허: 155>

c. 妄靈된 바가 成立 하자마자 이미 (그 것을) 밝은 眞理(理)는 넘어가지 못하니 --- <필자>

(29) a. 我∅/ ㅣ 一宣揚ᄂᆞᄆᆞᆺ/ ᄂᆞᄆᆞᆺ/ ☒/ ᄀᆞ/ 애 愛心ㄹ/ 이 永脫ᄂᆞᄒᆞ/ ᄒᆞ

---

24) 위 '所'는 受動(客觀)의 뜻. 能의 對<불사전: 680>. 以下 同.

25) 위 '能'은 能動(主觀)의 뜻. 所의 對<불사전: 1084>. 以下 同.

야 成阿羅漢ᄂᆞᆫ/ ᄒᆞ니 <七1b/ 七No.160b/ ☒/ 七2b/ 七4b>

a'. 내가 한 번 펴 닐오매 愛心이 永히 버서 阿羅漢올 일우니 <七5a>

b. 내가 한 번 呪를 宣揚하매 愛心에서 아주 解脫하고 阿羅漢을 이루었으니, <이운허: 292>

c. 내가 (神呪를) 한 번 宣揚 하자마자 (그) 愛心이 영원히 벗어나서 阿羅漢을 이루었으니 --- <필자>

(30) a. 將欲復眞ᄂᆞᆷ/ 하야 欲眞ᄂᆞᄒᆞᆫ/ ᄂᆞᄒᆞᆫ/ ☒/ ᄂᆞᄅᆞ/ 이면 已非眞眞如性ᄂᆞᆺᄋᆡ/ 이니 <七13b/ 七No.180a/ ☒/ 七36b/ 七73b>

a'. 쟝ᄎᆞ 眞에 도라가고져 ᄒᆞ야 眞올 코져 ᄒᆞ면 ᄒᆞ마 眞實ㅅ 眞如性이 아니니 <七73b>

b. 장차 眞에 復하려면, 眞하고자 함의 의미 眞正한 眞如性이 아닌데 <이운허: 321>

c. 장차 眞으로 돌아가고자 하여 眞하고자 하자마자 의미 (그것은) 眞正한 眞如性은 아니니 --- <필자>

이상 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2≫는 "새로 추가되는 例文에서도 '纔·才'자나, '旣·已'자의 호응이 나타나는가"였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먼저 前者[纔·才]의 경우가 위 例文(12), (16), (17), (21), (23) 등 5 구절에서 나타났고, 後者[旣·已]의 경우는 例文(20), (22), (24), (25), (26), (28), (30) 등 7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前者도 後者도 아닌 호응의 글자(漢字)가 나타나지 않는 例文(13), (14), (15), (18), (19), (27), (29) 등의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이들의 문맥에서 자세히 풀이해 보면 例文(13)[夾注文 끝의 急 참조], (14)[吐'ᄂᆞᄒᆞᆫ' 다음의 早 참조], (18)·(19)[原文중 則 --- 3回 참조], (27)[原文중 因, 後 참조], (29) [吐'ᄂᆞᄒᆞᆫ' 앞의 宣揚 참조] 등은 前者에 해당하며, 例文(15)[原文에서 依前 참조]는 後者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제≪2≫인 호응 글자'纔·才'나 '旣·已'가 나타난다는 蓋然性은 풀어진 셈이다. 다음은 문제≪3≫인 "다른 환경"이란 곧 '纔·才'자나 '旣·已'자가 없는 경우(A)와, 또는 다른 글자(漢字)와 호응하는 경우(B)인데, (A)는 위 문제≪2≫인 例文 (13), (14), (15), (18), (19), (27), (29)

에 해당하고 (B)의 경우는 없음으로 문제 ≪3≫은 자동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한편 여기 吐'ㅅ가ㅈ'의 핵심 의미인 현대어 「'-자마자 … (잠)깐'이나, '-자마자 … (이)미'」의 풀이가 오늘날 口語體로서 지금 우리의 實感에게만 와 닿는다는 것 뿐이지, 麗代에서 당시의 文語體 「'ᄒᆞ며 … (ᄀᆞ)시'나, 'ᄒᆞ며 … (이)믜'」인 복합어(결국은 單一語로 歸一함)로서 터득했던 당시 高麗人(佛徒)들의 實感에 꼭 들어맞는 어휘를 찾아낼 가능성이란 그 어휘가 漢文에서 '順讀 + 逆讀'이란 특수 文語體이기 때문에 희박하다.

그러므로 이 吐 'ㅅ가ㅈ'가 우리의 考究에서 난해의 문제로 대두된 이유는 첫째, 이 吐가 거의 구하기 어려운 「고려본」에만 희귀하게 나타난다는 등 빈도가 너무 적었다는 점, 둘째, 하나의 口語體인 어형이 아닌 두 개의 형태로 구성된 文語體인 복합토임을 미처 분석하지 못했던 점, 셋째, 이제까지 "구결 연구"가 통사론적인 고찰보다는 오히려 형태론적인 고찰에만 치중했었다는 점 등이 그 원인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한 가지 添言할 것은 이 吐'ㅅ가ㅈ'가 先代로 遡及, 언제 발생하여 쓰여 져 오다가 언제 어떻게 消失되었는가의 그 年代의 추적이다. 우리가 前述에서 이미 귀납한 바 吐'ㅅ가ㅈ'가 틀림없이 '복합토'였다면 그 上代인 이른바 舊譯仁王經의 釋讀口訣 時代(남풍현, 1985: 12c 추정)에선 물론 이 吐도 'ㅅ가 + ㅈ'이었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 吐'ㅅ가'는 順讀임으로 右側에, 吐'ㅈ'는 逆讀임으로 左側에 각각 현토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 후대인 「안동본」의 현토시대(麗中인 1250年代 ?)에 와서, 즉 舊仁時代로부터 약 100년을 相距한 順讀時代에 와서는 그 'ㅅ가ㅈ/ ᄒᆞ며 히'의 文語體 그 形態 意識마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前述의 「안동본」에서 이미 例文 (23)의 吐'ㅅ가ㅈ'의 위치에 1回<四 No.84b>를 吐'ㅅㄱ/ ᄒᆞ면'으로 대체[改吐]하였고, 「대구본」은 역시 例文 (5)와 (21)에서 2回<四No.94a, 二No.48b>를 'ㅅㄱ/ ᄒᆞ면'으로 대체[改吐]하였다. 또 「기림사

본」은 例文 (5)에서 1回<四22b>를 'ㅅ가ㄱ/ ᄒᆞ면'으로 역시 대체[改吐]하였기 때문이다.[26] 그리하여 이 吐'ㅅ가ㅈ'는 麗末에 와서는 완전히 消失된 것으로 「송석문본」(1401)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高麗吐이면서 李朝(15세기)에까지는 계승되지 않았던 單一吐 ① '大/ 대', ② '十/ 예', ③ 'ㅌㅣ/ 딧-', ④ 'ㅅㅎㅣ/ 호니니', ⑤ 'ㅅㄱㅗㅏ/ 혼여희', ⑥ 'ㅅㄹㅗㅏ/ 홀려희' 따위는 모두 「송석문본」에서도 계승되었으나 유독 이 'ㅈ'의 逆讀吐와 결합된 복합토 'ㅅ가ㅈ'만은 위 [三] 「首楞嚴經」의 모든 例文에서 즉 (5)의 'ㅅ가/ ᄒᆞ며', (6)의 'ㅿㄹ/ 커늘', (7)의 'ㅅㅜ/ ᄒᆞ면', (8)의 'ㅅㅜ/ ᄒᆞ면', (20)의 'ㅅㄱ大/ 혼대', (21)의 'ㅅ가ㄱ/ ᄒᆞ면', (22)의 'ㅅㄱ大/ 혼대',[27] (23)의 'ㅅㅜ/ ᄒᆞ면', (24)의 'ㅅㄱ大/ 혼대', (25)의 'ㅅㄱ大/ 혼대', (26)의 'ㅅㄱ大/ 혼대', (27)의 'ㅅㅋ/ 혼야', (28)의 'ㅅㄱ大/ 혼대', (29)의 'ㅋ/ 애', (30)의 'ㅅㅜ/ ᄒᆞ면', 등과 같이 改吐로 대체되어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難澁한 逆讀吐와 결합된 복합토의 意識은 이 때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제까지 위에서 단 하나의 吐'ㅅ가ㅈ'를 놓고 이렇게까지 장황한 傍證을 늘어 놓기까지에는 여기에도 어떤 因生(hetumattva)이 있는 것 같다. 외람되지만 필자는 뜻하지 않게 석사 2년부터 4년간을 心岳선생님께 띠엄띠엄 사사한 바가 있다. 옛글에 '佶屈聱牙 多岐亡羊'이란 문귀가 꿈결 같이 되살아난 듯 기실 경황이 없던 '87년 가으내 막바지엔, 별 수 없이 백제문화원으로 선생님을 몇차례 찾아 뵙곤 했다. … 잔뜩 귀를 기울이시던 그 분의 해답은 意外(?)로 "더 많은 자료를 발굴해서 계속 방증만 쌓아 보라!"는 되뇌이심 뿐이었다. … 그런데 불현듯 이제와서 그 先覺의 誨가 자꾸만 왜 이다지도 울꺽 새김질로 반추(反芻)되는가! 해서이다.

---

26) 만일 위 「기림사본」에서 卷六, 七까지를 더 볼 수 있었다면, 위 'ㅅ가ㅈ'의 改吐는 더 추가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27) 위 改吐'ㅅㄱ大/ 혼대'는 '원인에 의한 조건 기능'의 어미이다. 書傳大文A(16c, 頭注本)과 書傳大文B(16c 頭注本)<上44a/ 언해 三7a> 등에서 보여 준다.

5. 글맺이

이상에서 얻어진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표제의 吐'ㅅ가ㅈ'는 舊譯仁王經의 釋讀口訣 時代에서 吐'ㅅ가'가 右側吐로, 吐'ㅈ'는 左側吐로 각기 분리 및 현토되어 쓰였다가 順讀口訣 時代에 와서는 이 吐도 하나의 右側吐만으로 모아져 文語體인 복합토'ㅅ가ㅈ'로서 近 1 세기 못미처 쓰여져 내려온 것으로 귀납된다.

(2) 吐'ㅅ가ㅈ'는 '纔·才'자나 또는 이와 대립되는 '旣·已'자와 호응하는 경우, 혹은 '纔·才'자나 '旣·已'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前者와 같이 호응하듯 그러한 의미·기능의 문맥으로 쓰여진 漢文 句節이 있는 경우, 위 호응하는 글자(漢字)나 또는 그러한 문맥상의 위치의 前後에서 慣用的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ㅅ가ㅈ'의 의미·기능을 해독할 때, 지금 우리의 현대어로는 '-자마자 — (잠)깐', 또는 '-자마자 — (이)미'로서 푸는 것이 가장 가까운 것이다.

(3) 이 文語體인 복합토'ㅅ가ㅈ'는 麗末이 오기 조금 앞서서 이미 消失되었다고 믿어진다.

---

* 이 小稿는 心岳선생님의 학은에 보답코저 … 이번 이 학술지를 지참하여 뵙고저 하였으나 이제는 안 계신 분 … 영전에 엎드려 삼가 바치나이다.(1994.7.7.)

參 考 文 獻

1. 論 著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高賢燮(1989), 大慧普覺禪師書(荒木 著書 번역본) 도서출판 밀알

權五虎(1989), 佛說四十二章經 宣文出版社

金斗燦(1987), "直指心體要節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學 16 塔出版社

———(1987), 高麗版 南明集의 口訣硏究(학위논문) 단국대 대학원

———(1989), "佛說四十二章經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學 18 塔出版社

———(1991), "舊譯仁王經 口訣字에 대하여" 구두 발표 제7회 구결연구회

———(1991), "口訣'難'(난)과 '羅隱'(란)에 대하여" 구두발표 '91 하반기 구결연구회

———(1993), "首楞嚴經 (卷二) 講讀資料의 附表 'ㅅ가ㅎ'의 例文" 구결 월례(1월) 강독회

金雲學(1980), 金剛經五家解 玄岩社

南廣祐(1960), 古語辭典 一潮閣

南豊鉉(1990), "高麗末·朝鮮初期의 口訣硏究" 震壇學報 69 震壇學會

沈載烈(1979), 梵網經 普成文化社

安秉禧·李珖鎬(1990), 中世國語文法論 學硏社

劉昌惇(1964), 李朝語辭典 延大 出版部

李基文(1964), "動詞 語幹「앉_, 엱_」의 史的 考察" 趙潤濟 博士 回甲紀念 論文集 新雅社

李崇寧(1955), "新羅時代의 表記法 體系에 관한 試論" 서울大 論文集 2 서울大

———(1961), 中世國語文法(改訂) 乙酉文化社

李丞宰(1990), "高麗本 梵網經의 口訣" 애산학보 9

———(1993), "麗末 鮮初의 口訣資料" 安秉禧先生回甲紀念論叢

文學과 知性社
李耘虛(1974), 佛敎의 哲理와 修行의 完成 東國譯經院
———(1975), 慈悲道場懺法 大覺會 出版部
李翊燮·任洪彬(1983), 國語文法論 學硏社
崔銀圭(1993), "詳校本 慈悲道場懺法의 口訣에 대하여"
安秉禧先生 回甲紀念 論叢 文學과 知性社
홍기문(1957), 이두연구 북한출판물 복제판
安井 稔(1971), 新言語大辭典(改補) 硏究社
中村 元(1981), 佛敎語大辭典 (주)東京書籍
荒木見悟(1969), 大慧書 筑摩書房

2. 資 料

金剛般若波羅蜜經 上下(永樂乙未. 1415) 宋成文氏 所藏本
舊譯仁王經上 落張 5枚(12C 추정) 東國大 圖書館 所藏本
南明泉和尙頌證道歌(崔怡 己亥. 1239) 朴東燮氏 所藏本
南明泉繼頌諺解上下(成化 十八. 1482) 影印版 檀國大
大慧普覺禪師書(麗末 추정) 南豊鉉 교수 所藏本
梵網經菩薩戒(大德 丙午. 1306) 嚴仁燮氏 所藏本
法華經 卷三·四(世宗朝) 南豊鉉 교수 所藏本
法華經諺解(天順 七, 1463) 影印版 大提閣
佛說四十二藏經(至正 辛丑. 1361) A本 尹炯斗氏 所藏本
佛說四十二藏經(至正 辛丑. 1361) A′本 李健熙氏 所藏本
佛說四十二藏經(李檣 甲子. 1384) B本 朴東燮氏 所藏本
佛說四十二藏經(成化 十五. 1479) C本 黃浿江 교수 所藏本
書經諺解(萬曆 十六. 1588) 影印版 大提閣
書傳大文(16C 추정. 頭注本) A本 蓬左文庫 所藏本
書傳大文(16C 추정. 頭注本) B本 高麗大 大學院 圖書館 所藏本

書傳大文(16C 추정, 正字吐 夾注本) 日本 國會 圖書館 所藏本
首楞嚴經(建炎 改元. 1127) 朴東燮氏 所藏本
首楞嚴經(麗末 추정) 南權熙 교수 所藏本
首楞嚴經(恭愍王 十九. 1370) 祇林寺 所藏本
首楞嚴經(建文 三. 1401) 宋成文氏 所藏本
楞嚴經諺解(天順 六. 1462) 影印版 大提閣
慈悲道場懺法(洪武 十二. 1379) 趙炳舜氏 所藏本
川老金剛經(洪武 二十. 1387) 某氏 所藏本